



**포커스**

전환기를 맞은  
통일준비,  
새로운 각오와  
인내로 헤쳐 나가야



<p>▶ 통일 전문가가 되고 싶다면?</p>	<p>▶ 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p>	<p>▶ 통일로 통하는 즐거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포커스</b> 전환기를 맞은 통일준비, 새로운 각오와 인내로 헤쳐 나가야</li> <li> <b>통일 돋보기</b> 2016년 남북한 법정공휴일은 며칠?</li> <li> <b>Today 남북</b> 유네스코에 등록된 남북한의 문화유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통일을 여는 사람들</b> 아이들,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다</li> <li> <b>통일 Talk</b> 사고뭉치, 문제아 꿈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다</li> <li> <b>작중우들 남한적응기</b> 응답하라 1998, 내 고향 셋별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느낌 있는 여행</b> 이 계절이 건네는 가장 다정한 인사 경남 합천</li> <li> <b>통일 웹툰</b> 자기는 눈이 봉우리야?</li> <li> <b>통일 레시피</b> 달콤한 전통 과자, 황해남도 대추밤초</li> </ul>

**웹진앱**을 설치해보세요  
웹진 이용 GUIDE
 
 **지난호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신청**
**구독해지**
**웹진개선건의**

<p><b>통일 플러스</b> 포커스 통일 돋보기</p>	<p><b>통일 스토리</b> 통일을 여는 사람들 통일 Talk</p>	<p><b>남북공감</b> Today 남북 작중우들 남한 적응기</p>	<p><b>민주평통 365</b> NUAC 뉴스</p>	<p><b>즐거운 통일</b> 느낌 있는 여행 통일 웹툰 통일 레시피</p>	<p><b>심표, 느낌표</b> 이벤트 당선작 이벤트① 이벤트② 이벤트 당첨자 발표</p>
---	---	---	------------------------------------	--	--





## 전환기를 맞은 통일준비, 새로운 각오와 인내로 헤쳐 나가야

차 두 현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인해 2016년 초반부터 한반도의 안보·통일 환경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제재, 그리고 우리의 일관된 신뢰프로세스 추진에도 불구하고 평양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핵보유국' 지위라는 허망한 집착을 포기하지 않음을 방증한다. 핵은 인류가 개발해 낸 가장 위험한 '궁극의 무기'이다. 이것이 실제로 사용될 경우 공격을 한 측이든 당한 측이든 누구도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체제 중 하나가 가장 위험한 무기를 가지려 한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많은 것을 함축한다.

낙후된 체제나 국가가 생존·발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의 서로 다른 길이 있다. 그 첫 번째는 국제적 기준과 앞선 국가들의 모범사례를 따르고 배워가면서 스스로 체제를 개혁해 나가는 길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 특히 자신들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와 평화·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협력적 자세로 시대의 추세와 세계적 조류에 순응하는 가운데 자신의 환골탈태(換骨奪胎)를 위해 노력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정반대의 방법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기보다는 철저히 문제아가 되는 길이다. 선의에 기초한 협력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완력과 협박에 의존해 나름의 생존을 모색하는 길이다. 골목의 폭력배가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뜯어내는 일과 그리 다르지 않다. 물론, 이견 현명하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법이다. 강대국들이 즐비한 국제구도에서 그런 일탈을 계속 허용하지도 않겠지만, 무엇보다 개혁의 적기(適期)를 놓친 병든 체제의 증상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는 이것이 독재자나 소수 기득권층의 이익을 잠시 유지시켜줄 수는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마약과 같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두 번째의 길,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악수(惡手)를 선택했다. 이는 남북한 간에 꾸준히 신뢰를 축적하면서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우리의 대북접근에도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대북제재와 관련된 공조체계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주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역시 우리가 앞으로 헤쳐 나가야 할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부 주변국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다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계산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북한은 4차 핵실험을 통해 두 번째의 길,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파멸을 불러올 수도 있는 악수(惡手)를 선택했다. 이는 남북한 간에 꾸준히 신뢰를 축적하면서 교류와 협력기반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우리의 대북접근에도 중대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다. 더욱이 대북제재와 관련된 공조체계 구축과정에서 드러난 주변국들의 상이한 이해관계 역시 우리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결코 만만치 않음을 암시하고 있다. 일부 주변국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해법과 관련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다는 동아시아 지역 내에서 자신들의 전략적 계산과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평시의 외교적 수사(修辭)와 중요한 시기의 결정적 선택이 차이가 나는 이러한 행태는 미래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기에 우리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의 여론도 감안해야 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철저히 핵 위험 위주의 길을 선택한 이 마당에 '통일준비'가 지나치게 이상적이고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2016년을 새로운 각오, 긴 심호흡을 통한 인내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전환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 첫째,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평화통일과 원만한 통합을 위한 최적대안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 둘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준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이 단순한 당위적 명제나 이상적 구호가 아닌, 우리의 또 한 번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최선책이며, 실제적으로 현재진행형의 성격을 띠는 과제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 셋째,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 역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대화와 설득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러한 도전들은 이미 이전부터 잠재하고 있었던 것이 북한 핵실험이라는 계기를 통해 표출된 것일 뿐이다. 주민들의 행복과 체제의 번영보다는 개인의 권력욕과 정권의 안위를 추구해 온 북한의 행태도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주변국들의 각박할 정도의 자국 이익 중심주의 역시 냉철하게 바라볼 때에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점에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궁극적 처방으로서 통일의 중요성과 통일준비의 당위성은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2016년을 새로운 각오, 긴 심호흡을 통한 인내를 가지고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전환기로 만들기 위해서는 특히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다른 국가의 경험으로부터 평화통일과 원만한 통합을 위한 최적 대안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더욱 구체화되어야 한다. 피상적·단편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었던 각종 법적·제도적 통일 사례들을 이제는 확고한 목표의식 하에서 입체적으로 정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 통일과 관련된 남북한 선언이나 협정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물론, 실제 남북통일 과정이 도래하면 그 내용은 상당 부분 수정될 수밖에 없겠지만, 원활한 논의를 위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준비를 더욱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통일준비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통일이 단순한 당위적 명제나 이상적 구호가 아닌, 우리의 또 한 번의 도약과 지속 가능한 번영을 위한 최선책이며, 실제적으로 현재진행형의 성격을 띠는 과제임을 느끼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 특히 통일준비를 여전히 낯설게 받아들이는 청소년 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 과정에서 꾸준한 소통과 지혜의 결집을 통해 통일준비가 범정부적 차원을 넘어 정부,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한바탕의 흐드러진 축제와 같은 것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때 통일준비는 행정부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성격을 띠게 된다.

셋째, 북한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 있게 여건을 조성하는 노력 역시 결코 포기할 수는 없다. 물론, 이러한 노력에는 대화와 설득만이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에 맞추어 우리의 단호한 의지와 튼튼한 안보태세를 과시하는 것 역시 북한을 핵무장의 덧없는 미망(迷妄)에서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자세이다.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협력 가능한 분야에 있어서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조화의 미학(美學)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향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인도주의나 민간 교류 분야에서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협력계획들이 현시점부터 준비되어야 한다. 이는 북한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로 연결되며, 결국 소수의 이익에만 집착하는 현재의 북한체제를 변화시킬 또 하나의 동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2016년 남북한 법정공휴일은 며칠?

## 남한

연간  
**66**

토요일휴무포함  
**118**

- 신정(1.1)
- 설연휴(2.7~9)
- 대체휴일(2.10/설연휴)
- 3.1절(3.1)
- 국회의원선거(4.13)
- 어린이날(5.5)
- 석가탄신일(5.14)
- 현충일(6.6)
- 제헌절(7.17)
- 광복절(8.15)
- 추석연휴(9.14~16)
- 개천절(10.3)
- 한글날(10.9/일요일)
- 성탄절(12.25/일요일)

## 북한

연간  
**67 - ?** 실제



- 양력설(1.1)
- 설명절(2.8)
- 김정일 생일(2.16)
- 정월대보름날(2.22)
- 국제부녀절(3.8)
- 청명절(4.4)
- 김일성 생일(4.15)
- 북한군 창건일(4.25)
- 노동절(5.1 일요일)
- 소년단 창립일(6.6)
- 전승절(7.27)
- 광복절(8.15)
- 선군절(8.25)
- 정권수립기념일(9.9)
- 추석(9.15)
- 당창건기념일(10.10)
- 어머니절(11.16)
- 헌법절(12.27)

※ 2016년 북한 달력에는 김정은 생일(1.8)이 공휴일로 표기되지 않았다. 2015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된 6월 19일(김정일의 노동당 사업시작), 5월 1일(국제노동절)은 일요일이어서 공휴일 여부 확인 불가.

※ 달력에는 공휴일로 표기돼 있어도 4대 명절(김정일 생일, 김일성 생일, 정권수립기념일, 당창건기념일), 양력설, 음력설, 노동절, 전승절, 광복절, 추석, 헌법절 정도만 휴무인 경우가 많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동식 박사)

※ 남한은 주5일 근무제(토 휴무)를 포함할 경우 올해 실제 휴일 수는 118일이다.

## 북한의 민족 최대 명절은? 태양절 & 광명성절



북한은 명절 가운데 김일성 생일(4월 15일, 태양절)과 김정일 생일(2월 16일, 광명성절)은 '민족 최대의 명절'이라고 일컫는다. 김일성 생일의 경우 1962년 50회 생일을 기해 명절의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1972년부터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김정일 생일의 경우는 1975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고 1995년 '민족 최대의 명절'로 규정했다.



북한의 민속명절은? 양력설과 음력설, 정월대보름,



## 청명절, 한가위(추석)



양력설과 음력설, 정월대보름, 청명절, 한가위(추석) 등이 있다.  
1967년 '봉건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의 지시가  
내려지면서 철폐되고 양력 설 하나만 인정했다가 점차 부활했다.  
2012년에는 청명절(4월 5일)도 명절로 지정하였다.  
청명이란 동지 후 100일 되는 날로  
조상의 묘를 참배하고 제사를 지내는 날이다.





# 아이돌, 평화통일을 이야기하다

모델 · 래퍼 · 뮤지컬배우 채가혜

대학생과 민주평통 자문위원들이 함께하는 통일대화 현장. 포롱포롱한 눈망울을 가진 인형 같은 미모의 어린 여성이 솔직담백한 말투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다. 심오하지도 전혀 색다르지도 않은, 그냥 이 땅의 청년들이 한번 쯤 고민해봤을 법한 통일이야기인데도 가만히 듣다 보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걸그룹 아이돌 출신의 연예인이자 언어 영재출신의 학구파 재원인 채가혜 양에게 '통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 🎵 '통일'과 가장 어울리는 단어, 그건 바로 청년입니다!

"저는 통일전문가도 아니고, 아직 잘 모르는 것이 많아요. 하지만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반드시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통일이 되지 않으면 가장 힘들 세대도 청년이고, 통일이 되면 그 뒤에 이어질 모든 행복을 평생 누릴 세대 또한 청년이니까요." 채가혜 양은 지난 가을 민주평통 지역협의회(안양시·성남시·시흥시·여주시·거창군 등)가 대학생 및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통일토크, 통일공감 행사에서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편익을 알렸다.

청년 강연자 혹은 패널로 활동하면서 많은 학생들과 통일 이야기를 나누고, '30대 언니 오빠'들과 청년들의 역할에 대해 토론하며 자기 스스로도 많은 성장을 이룬 것 같다고 말하는 채 양은 행사 후에도 이들과 SNS친구가 되어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젊은 세대 뿐만이 아니다. "거창군 강연에서는 통일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깊이 공감해주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통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다른 세대가 하나 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고 마음이 따뜻해져오는 걸 느꼈어요. 이런 '마음'만 있다면 통일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 실제로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게 됐죠."



◀ 안양시협의회 '통일시대 시인교실' 강연

▼ 시흥시협의회 '2030 차 한잔에 담긴 통일이야기'







## 🎵 학업 때문에 가수 활동 중단했지만 음악은 평생 친구

채가혜 양이 처음부터 통일에 대해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다. 대학교 때 아마추어 뮤지컬 배우이자 안무연출가로 활동했던 그녀는 우연히 연예기획사에 캐스팅되어 2년간 한국과 싱가포르를 오가며 'BIKINY'라는 걸그룹 멤버로 얼굴을 알렸다. 'BIKINY'는 싱가포르에서 상당한 인기를 얻었지만 채 양은 얼마 안 있어 활동을 접어야 했다. 2년 이내에 대학을 졸업하겠다는 아버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중학교 때 교육인적자원부 지정 언어영재로 선정됐고 서울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에 1등으로 입학했으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프랑스어를 전공중인 그녀였기에 아버지는 아이돌 활동을 반대하며 채가혜 양이 공부를 계속 하길 바랐다. 채 양은 기획사 대표와 함께 아버지를 설득하기 위해 '정해진 기간 내에 학교를 꼭 졸업하겠다'고 약속하고 활동을 시작했었다.



박칼린의 뮤지컬 '카봉'에서 '미녀'역할로 출연



잡지 및 브랜드, 한복 및 한류 홍보모델로 활동

결국 아쉽게 활동을 접은 그녀는 학업에 매진했고 마지막 학기 동안 졸업에 필요한 3개의 시험 및 과정을 모두 초고속으로 통과했다. '그땐 잠도 안자고 공부했다'며 웃었지만 그 시기 박칼린 감독의 뮤지컬 '카봉'에 미녀 역할로 출연했고 잡지 '맥심(MAXIM)', '스터프', 'HIM' 모델 등으로도 활동했다는 사실이 놀랍다. 게다가 채가혜 양은 작년에 2개의 미인대회에서 입상, 한복 모델 및 한류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 🎵 큰 무대에 서고 싶단 제 꿈, 통일과 맞닿았어요!



그런데 왜 아이돌 가수는 '통일소녀'가 됐을까? 연에게 활동을 접고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채가혜 양은 지도교수(안제노 박사)의 일을 도우며 대화를 나누다가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한다.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프랑스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에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요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는데 '통일이 되면 한국이나 싱가포르 외에 북한 무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와 닿았다. 아버와의 약속 때문에 접어야 했던 음악을 향한 열망과 통일이 맞닿는 순간 '통일'이란 단어가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됐다.

"언어가 달라도 같은 음악을 좋아할 수 있는 것처럼 음악은 누구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다"고 말하는 채가혜 양은 올해 '미니멀'이라는 이름으로 랩 장르의 싱글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라고 한다.

"랩은 공격적이고 거칠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저는 밝고 힐링이 될 수 있는 음악을 많이 하고 싶어요. 그 앨범 안에 담길 곡 중 하나가 통일노래구요. 통일에 대해 문화적이고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북한 주민들도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곡을 노래할 거예요."

채가혜 양은 독일의 통일에도 동독 주민들의 서독 방송 시청이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처럼, 북한 주민들이 음악으로 우리에게 대한 오해를 풀고 마음을 움직이면



좋겠다며 '통일 노래'로 남북한 주민을 화합하고, '통일 문화'라는 공감대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프랑스에 쉽게 갈 수 있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지만 무엇보다 북한에도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요를 좋아하는 주민들이 늘어났는데 '통일이 되면 북한 무대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와 닿았다. 아빠와의 약속 때문에 접어둬야 했던 음악을 향한 열망이 통일과 맞는 순간 '통일'이란 단어가 마음 깊이 자리하게 됐다.



## 우연한 계기가 관심을 만들고, 관심이 열정을 만든다!

채가혜 양은 통일 강연에 참여하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생각도 바뀐 것 같다고 했다. 북한처럼 폐쇄적인 사회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오해가 많겠지만, 우리 역시 북한사회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북한주민, 혹은 탈북민에 대한 선입견이 적지 않은 것 같다고.

"처음엔 우리나라에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우리와 언어만 같을 뿐이지 살아온 환경이 달라서 외국인과 대화하는 것처럼 낯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직접 만나보니 '남한 북한' 이야기는 강연에서만 할 뿐 일상적인 이야기로 들어갔을 때 고민하는 분야나 생각하는 건 저랑 똑같더라고요."

채가혜 양은 무엇보다 '계기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우연히 '통일'이 자신의 꿈과 맞물려지는 상황이 생기니까 통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열정적으로 빠져든 것처럼, 통일 이후 청년들이 얻게 될 혜택에 대해 알려준다면 그들 역시 통일에 더욱 관심을 갖게 될 거란 뜻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녀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음악공연이나 강의 등을 통해 많은 청년들과 통일을 주제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글/사진 기자회견>



# 사고뭉치, 문제아 꿈의 날개를 달고 비상하다



인천장도초등학교  
탈북가정학생  
학교 적응기



“옛날에는 그렇게 악을 쓰던 게 그래도 요즘에는 뭐라고 하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요. 말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경심이 엄마),  
“경심이 착해졌어요. 원래는 욱도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도 대들고 그랬는데 이젠 안그래요(경심이 친구).”  
경심이는 탈북민 가정의 아이로 9살에 중국에서 왔다. 학교와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마다 악다구니로 버티던 경심이는  
6학년 때 윤현희 선생님을 만나면서 꿈 많고 재능 많은 아이가 됐다. 선생님은 경심이 엄마의 적극적인 관심, 반 친구들의 협조,  
경심이 스스로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말한다. 예비중학생 경심이의 ‘변신이야기’를 들어보자.



경심이(탈북민가정 학생)

‘사고뭉치’ ‘싸움꾼’으로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했지만 6학년이 된 후 미술과 중국어를 잘하는 신동으로 거듭났다. 욱도 안 하고 모둠활동도 열심히 해서 남한 친구들이 제법 많아졌다.

영애(탈북 학생)



8년 전 북한에서 엄마를 따라 남한으로 왔다. 반에선 귀염둥이로 통하지만 집에선 동생들을 알아서 챙기는 효녀.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감동적인 글을 써내서 큰 상을 받기도.

권민재(남한 친구)



작년엔 경심이란 사이가 나빴지만 이젠 단짝 친구가 됐다. 공부는 물론 토론과 글쓰기를 논리적으로 잘해 ‘변호사’란 별명을 갖고 있다.

윤현희 담임 선생님



13년 째 교육현장에서 항상 공부하고 노력중인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고, 좋은 선생님이 되려면 말이나 생각보다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



### 경심엄마(탈북민)

중국에서 데려온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남한사회에 동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윤 선생님과 자주 상담하며 경심의 변화를 함께 만들어갔다.

※ 인천장도초등학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41명의 탈북·중도입국 학생들이 재학 중이고 2008년부터 교육부 주관 연구과제들을 수행해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담임교사-탈북학생 간 멘토링을 중요시 하고 있는데, 경심의 경우 지난해 △'어울림'과정으로 친구들과 친해지기 △자랑스런 엄마되기 수업 △과학미술대회 학생대표 출전 △ 중국어반에서 자신감 찾아주기 △교환일기장으로 속 이야기 나누기 △각종 문화체험 등을 선생님과 함께 했다.

## ‘미술계 꿈나무’ 경심을 소개해주세요!

**경심 :** 안녕하세요. 저는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도 칭찬 해주시고 애들도 잘 그린다고 말해줬어요. 중국어도 잘하고요. 특히 엄마가 이쁘고, 선생님이 착하시고, 좋은 친구들도 있는 박경심입니다.



**경심엄마 :** 선생님이 너무 고맙죠. 경심이 이렇게 잘 될 거라곤 생각도 못했어요. 올해 중학교에 올라가는데 조금 마음이 놓여요. 애는 남한으로 올 때도 제3국을 통해서 오느라 어린 것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중국어밖에 못하니 적응하는 게 힘들었죠. 방학 때는 물론 방과 후에도 매일 공부를 시켰더니 입도 부르토고 말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경심이는 성격이 꽤 강해요. 몇 년간 엄마랑 떨어져 있다 보니 반발감 때문에 힘들거나 짜증 날 때마다 화가 폭발하곤 했어요. 저와도 많이 싸웠고 하루가 멀다하고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죠. 경심이 애들을 때린다고. 심지어 5학년 땐 남자아이들 엄마 스물한 명이 항의하려고 줄 서서 기다린단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럴수록 저도 더 강하게 나갔어요. 경심을 야단치고 때리고 내쫓기도 하고요. 그런데 6학년 선생님이 많이 격려해주시니까 이젠 정말 좋아졌어요.

**민재, 영애 :** 5학년 때 한 반이었는데 경심을 싫어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그땐 친하지도 않았고 많이 싸웠는데 6학년 올라와서 친해졌어요. 짝도 했었고 모둠활동을 같이 해보니까 경심이 열심히 참여하고 애들에게도 잘해주는 게 보이더라고요.(민재) 근데 경심이 정말 많이 싸웠었어요. 지금은 안 싸우지만요.(영애)



## ‘도 아니면 모!’ 경심의 재능이 빛을 발하다



**윤현희 선생님** : 6학년 봄에 우표그리기 대회 예선을 했는데 아이들의 투표를 거친 결과 경심이 작품이 가장 많은 표를 받았어요. 하지만 경심을 대표로 본선에 내보내는 데는 선생님들까지도 다 부정적이었죠. 2인 1조로 출전해야 하는데, 경심이 대회에서도 친구와 싸울까봐 걱정이란 거예요. '모 아니면 도'란 생각으로 일단 본선에 내보냈어요.

**경심** : 옛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게 과제였는데 함께 간 친구와 의견이 달라서 계획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은상을 받았고 친구랑 같이 해서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는 의견을 맞춰서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싶어요.

**윤현희 선생님** : 회화 분야 명문학교로 진학한 선배가 있는데 여름방학 때 불러서 함께 벽화그리기도 했어요. 열심히 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려구요.

**경심** : '잘못 하다가 벽화를 망쳐버리면 어떡하지?'란 생각도 들었지만, 처음 해보는 거라 색다른 경험이기도 했고 그림이 예뻐서 보람도 있었어요.

**경심엄마** : 저는 작년에 선생님이 꽃꽂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제가 꽃꽂이 선생님이 돼서 경심이 친구들 앞에서 수업을 진행하니 경심이 너무 좋아했어요. '엄마가 예쁜 디자인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엄마를 닮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뻐요. 친구인 영애도 꿈이 플로어리스트라고 하는데 눈썰미가 좋아서 곧잘 따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랑 엄마랑 얘기 하고나서 처음 알았다. 엄마가 이렇게 대단했다니... 북한에 잡혀 가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날 데리러 오고... 내가 엄마의 딸이라서 참 고맙웠다. 선생님한테도 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은 시간이라든 어른이 되어서 꼭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든다. (가정방문 후 경심의 교환일기 중)

## ● '한국말도 못하는 아이'에서 중국어 신동으로!

**윤현희 선생님** : 경심에게서 발견한 또 하나의 장점은 중국어였어요. 중국어 선생님께 여쭙보니 '경심이 너무 잘해서 다른 아이들 수준에 맞추다 보면 흥미를 잃을까 봐 걱정'이란 얘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가르쳐주라고 했더니 뜻을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알려주는 걸 봤어요. 친구들에게도 도움이 됐겠지만 경심에게도 좋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경심** : 생각보다 애들이 잘 따라 해 줘서 고맙웠어요. 선생님도 응원해주셨고요. 중학교에 가면 학원에 다니면서 좀 더 열심히 공부하고 싶어요.

**영애, 민재** : 경심이는 중국어를 정말 잘해요. (영애) 우리랑은 발음이 완전히 다르니까 신기하기도 했고 중국에서 온지 꽤 됐는데도 아직 잘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민재)







**윤현희 선생님** : 초등학교 2학년 땐 중국말만 하고 한국어를 잘 못하니 친구들한테 소외당하거나 콤플렉스가 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친구들에게는 없는 경심이만의 자랑거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아요.

**경심엄마** : 중국어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니까 앞으로도 꼭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성격은 강해도 엄마 아파트랑 차 사준다고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해요. 중학교에 가면 두 가지 장점 모두를 키울 수 있도록 학원도 보내줄 거예요.

## ● '남한학생과 똑같은' 또 다른 탈북학생 영애

**윤현희 선생님** : 사실 경심이는 워낙 거칠기로 유명해서 알고 있었지만 영애 고향이 북한이란 건 몰랐어요. 4남매에 둘째인데 동생들 잘 챙기는 효녀예요. 교사들은 흔히 탈북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힘들다는 말을 해요. 싫다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측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학습진도나 가정형편의 문제를 떠나서 정신적 상처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영애에게선 전혀 그런 걸 느낄 수 없었어요. '너 북한에서 왔어?'라고 친구들이 물어볼 정도로 남한 학생과 구분 없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영애** : 사실 전 북한에서의 기억이 없는데 엄마가 많이 이야기해줬어요. 절벽에서 언니가 떨어졌던 일, 동생이 흰밥을 먹어버렸다고 제가 막 울었던 일 같은 거요. 엄마는 통일되면 할머니집에 가서 오순도순 살고 싶대요. 저는 엄마 고향길을 걸으면서 엄마 이야기 듣고 싶어요.

**경심엄마, 경심** : 경심이도 북한에 대해 몰랐어요. 어느 날은 교회에서 켜 놓은 영상을 보고 경심이가 막 울더라고요. 저게 어느 나라냐고 물으면서요. 경심이는 그때까지만 해도 엄마 고향이 북한인지 몰랐거든요. 그 뒤로 가끔 이야기 들려줘서 이젠 잘 알지요.(경심엄마) 저도 통일이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북한에 이모가 계시다고 들었는데 엄마가 엄청 보고 싶어 하시거든요.(경심)



**민재** : 영애도 경심이도 친척들이 북한에 계신다니 나이 드신 이산가족들이 돌아가시면 통일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 것 같아요. 통일이 되면 나라가 발전할 것 같은 한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 않게 빨리 통일이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윤현희 선생님** : 시간이 흐를수록 남북한 차이도 점점 커질 텐데, 통일 후 북한 학생들과 마주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를 미리 경험하고 준비한다는 생각으로 탈북아동을 가르쳐야 할 것 같아요. 미디어에서 북한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들이 가끔 나오니까 편견을 갖게 되는데 이런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을 커리큘럼 안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어려서부터 꾸준히 교육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한 탈북가정의 아이들을 케어할 때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힘들고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경심이의 경우도 어머니가 관심을 가져주시지 않았다면 제가 1년 노력한 것만으로는 아이가 저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과정에서 경심이만 변한 게 아니라 우리반 아이들 전체가 긍정적으로 변했던 생각이 들어서 더욱 좋은 것 같아요.





# 유네스코에 등록된 남북한의 문화유산

박성진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학예연구사)

통칭 '세계유산'으로 알려진 유네스코(UNESCO)의 등록 유산은 '세계유산', '세계기록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구분된다. '세계유산(World Heritage)'은 '세계유산 협약(1972)'에 근거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문화재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으로 분류된다. '인류무형문화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해 유네스코가 가치 있고 독창적인 구전 및 무형 유산을 선정하여 세계적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다.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은 유네스코가 세계의 귀중한 기록물을 보존·활용하기 위해 선정하는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 등록 유산은 1997년부터 2년마다 선정하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심의·추천하고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선정한다.



## 북한 세계유산 4개 등재, 2012년 이후 관심 높아져

남측은 2016년 1월 현재 세계유산 12개, 인류무형유산 18개, 세계기록유산 13개가 등재돼 있으며, 북측은 세계유산 2개, 인류무형유산 2개가 등재돼 있다. 남측에서 가장 최근인 2015년에 등재된 유산은 세계유산 분야의 '백제역사유적지구'와 인류무형유산 분야의 '줄타기', 세계기록유산 분야의 '한국의 유교책판'과 'KBS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다.

북측은 작년인 2015년에 인류무형유산 분야에서 '김치담그기 풍습'을 등재시켰다. 2004년에는 세계유산 분야에서 '고구려 고분군'을 최초로 등재시켰으며, 한동안의 공백기를 거친 뒤 2013년 '개성 역사유적지구'를, 201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를, 2015년 '김치담그기 풍습'을 연이어 등재시켰다.







▲ 공주 송산리 고분군



▲ 북한지역 고구려시대 벽화무덤

유네스코 등재 유산에 대한 북측의 관심은 2012년 이후 다양하게 확인되고 있다. 2012년 11월부터 기존의 '문화유물보호법'을 대신하여 '문화유산보호법'을 제정했는데 이전까지 다루지 않았던 무형문화유산 분야를 포함하고 있어 주목된다. 2013년 6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개성역사유적지구'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에서 각각의 유적들에 대해 12차례에 걸쳐 연재하여 당국 차원의 관심을 반영하고 있다. 필자는 우연한 기회에 작년 여름 개성에 새롭게 건설한 도로를 이용했는데, 과거 꽤 시간이 걸리던 유적들 간 이동 시간이 신기할 정도로 짧아진 것을 확인했다. 뿐만 아니라 개성시 중심부를 비롯한 도시 전반에 걸친 유적 경관 미화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발굴조사 8년여간 총 7차례 이뤄져

사실 개성의 문화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일은 이전의 고구려 고분과 마찬가지로 남과 북이 함께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됐다. 2005년 11월 '개성역사유적 세계문화유산 등재 지원을 위한 남북공동학술회의'가 개최됐으며, 같은 해 12월 제17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개성역사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사업을 위해 남북이 상호 협력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후 이러한 노력은 2007년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조사를 통해 실현됐으며, 작년까지 총 7차례에 걸친 발굴조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그동안 적지 않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2008년 제3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등재범위와 완충지역 면적 등으로 인해 등재가 반려되기도 했다. 또한 2007년 이후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된 작업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북측 단독으로 추진되었다. 그리고 등재과정에서 2011년 이후 만월대 공동조사와는 별개로 북측과 프랑스가 개성성과 개성남대문 등에 대한 공동발굴, 조사를 추진했다. 아마도 북측은 개성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는 당시의 남북관계를 고려했을 때 원활한 조사가 보장되는 제3국과의 협력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인다.



▲ 만월대 중심건축군 계단 전경(안내판, 세계유산현판)







- ▲ 만월대에서 출토된 원통형 청자 및 금속활자
- ◀ 만월대 침성대



## 문화유산 보존 위해 남한 및 제3국과 교류 늘어날 듯

최근 북측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기존의 역사유적 중심에서 무형, 자연문화재로 넓어지고 있다. 문화재를 담당하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에 2012년 이후 무형유산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생겼으며 2013년부터는 중앙과 지방에서 무형유산의 심의와 등록이 각각 진행됐다. 이러한 준비기간을 거친 뒤 북측은 2014년부터 무형유산(비물질민족유산)에 대해 언론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함경북도에 위치한 칠보산은 2014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생물권보호지역으로 등록됐는데 백두산, 구월산, 묘향산에 이은 4번째 지정이다.

2014년 10월 29일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꾼들과 한 담화(로작)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다'가 전달됐다. 당시 발표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문화유산 분야에 대한 담화로, 문화유산 부문 해당기관들(민족유산보호지도국·조선민족유산보존사)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내용 등으로 볼 때 향후 문화유산 분야에 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남측, 해외 동포, 제3국과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문화유산 보존, 연구, 활용에 있어 국제적 기준의 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유네스코 등재 유산은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접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 문화재청, 연합뉴스, 박성진 학예연구소〉



## 응답하라 1998, 내 고향 셋별군

얼마 전 종영한 '응답하라 1998'는 30여 년 전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사는 다섯 가족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다. 가족애와 함께, 이웃 간 따뜻한 정감이 돋보인 이 드라마를 보고 2000년대 초 북한을 떠나온 스물여덟 살 정욱이는 고향 마을의 이웃들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 가진 것 없어도 이웃 간 정 나누던 고향마을

1989년생인 정욱이는 드라마 '응답하라 1998'을 보면서 어릴 적 북한의 고향마을을 떠올렸다. '북한주민 인심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고들 하지만, 어릴적 엄마 심부름으로 먹을 것을 챙겨들고 옆집 앞집 뒷집으로 심부름을 가던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다. 또한 극중에 진주라는 아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눈사람을 갖고 싶다'고 하자 쌍문동 은 주인이 나선 것처럼, 동네 이웃이 한데 모여 기쁜 일이나, 근심 걱정을 함께 나누던 기억도 난다. 특히 요 무렵엔 설 설 떡을 만들기 위해 동네 주민이 다 모여 떡메를 치던 장면이 떠오른다고 했다. "우리 엄마든 아니든 다른 아줌마든 누군가가 앉아서 떡에 물을 묻히면 아저씨들이 떡메를 쳐요. 근데 떡에 물이 제대로 묻지 않으면 떡메에 붙어서 큰 떡덩어리가 튀어오르거든요. 그러면 주변에 빙 둘러앉은 우리 완전히 신나죠. 운이 좋으면 그 떡을 받아먹을 수 있거든요. 저는 설 되기 보름 전부터 심장이 뛰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정욱이 엄마는 요즘도 음식을 하면 옆집에 갖다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정욱이는 엄마를 극구 말린다고 했다. "안주느니만 못하다고 해도 이해를 못하세요.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는데도 괜히 우리가 준 음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씀드리곤 해요."

아무렴 세상이 그렇게까지 각박하겠냐고,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고 물었더니 정욱이가 들려주는 사연도 만만치 않다. 90년대



말 정욱이 엄마는 중국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다가 사정이 생겨 돌아오지 못했다. 그래서 정욱이는 9살부터 13살까지 혼자 북한을 떠돌며 목숨을 부지해야 했다. 이후 엄마와 연락이 닿았고 엄마의 도움으로 탈북하게 됐지만 '엄마가 나를 버렸다'며 한을 품고 살아온 유년기의 상처가 너무 컸다. 그리고 남한에 오기까지 10년간, 중국에서 어린 나이에 돈을 벌면서 세상의 차가움에 몸서리를 쳤다. "이젠 엄마와 나, 서로 숨기는 감정 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렇게 된 지 얼마 안됐어요. 엄마와 떨어져 지냈던 시간이 4년인데, 다시 마음을 열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 '뭉개 말하면 포개 듣기 어려운' 남한 말

'응답하라 1988'이란 드라마를 흔히 남한에서는 '응팔'이라고 줄여 부른다. 그런데 탈북민들은 줄임말을 알아듣기가 어렵다고 말한다<23호 참조(바르가기)>. 정욱이는 이런 줄임말도 이해 안가는 게 많지만 '남한사람들이 쓰는 말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돼 있는 것 같아 당황할 때가 있었다'고 했다. 예를 들어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자'라고 말할 때 남한 사람들은 그냥 인사치레로 받아들이는 반면 북한 사람들은 진짜 '밥 먹자'는 문자가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이다.

"뭉개 말하면 포개 듣는다잖아요(남한 속담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 듣는다'). 근데 잘 모르겠을 땐 차라리 꼬치꼬치 물어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밥 먹자고 하면 언제 먹을 건지 확답을 받아야 혼자 애타는 마음이 덜하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있으니 바로 '고등학생들의 언어'다.

"언젠가 하나센터 누나가 '노는 법을 배워준다(가르쳐준다 뜻의 북한 말)'고 해서 놀이공원에 갔어요. 남한에 온 지 얼마 안됐을 때였는데 고등학생들이 놀러왔길래 무슨 말을 하나 귀를 기울여봤죠. 그런데 단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완전 겁을 먹었죠.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다고 했더니 하나센터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저 이야기는 나도 못 알아듣겠다. 요즘 애들은 무슨 이상한 줄임말을 너무 많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웃음)"



<글. 기자희>

### 나 살던 고향은

## 물 맛 좋은 셋별군, 밭에서 석탄도 캐요!

함경북도 셋별군은 정욱이의 고향이다. 시린 겨울, 밤하늘을 가득 수놓은 건 별과 달 뿐인데, 달빛에 책도 읽을 수 있을 만치 밝고 크다는 셋별군 밤하늘의 달.

"고향에선 달이 정말 크게 보였는데 나중에 중국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궁금했죠. 그땐 과학지식이 전혀 없었을 때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북한 고향은 고산지대니까 달이 그만큼 가까워서라고요.(웃음)"

정욱이는 아직도 고향 셋별군의 물맛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동네 우물 위로 햇빛이 통과하면 아름다운 초록빛을 내는데 여름에 그 물을 마시면 관자놀이가 당길 정도로 시원하고 겨울에 마시면 따뜻하다고 한다. 가까이 사는 중국인들도 건너와서 셋별군의 물 맛을 보면 '어떻게 산 하나를 두고 물 맛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냐'고 묻곤 했단다.

'윤기가 흐르는 질 좋은 석탄'을 밭에서 캐낸 이야기도 했다. 고난의 행군 때 먹을 것도 없고 땀감도 없어 추위에 떨고 있는데, 동네 사람이 밭에서 석탄을 발견했고 계속 파보니까 석탄층이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탄광마저 일손이 멈췄을 때였는데 1~2m만 파면 석탄이 나와서 너도나도 언땅을 파곤 했다. 봄에 언 땅이 무너져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지만 따뜻하게 겨울을 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석탄 뿐 아니라 사금도 꽤 나온단다. 아이들 중 누군가는 손톱만한 사금을 발견해 많은 양의 쌀과 바퀴먹은 적도 있다고 했다. '사금을 계속 캐러다니다 보면 언젠가 커다란 금도 발견할 수 있지 않겠냐'고 물었더니

“그런 거 하나 얻으려면  
집 한 채만큼 많은 양의  
흙을 파서 조리로  
행귀내야 한다”며 웃었다.



※ 위 사례에서 소개된 북한의 문화는 북한이탈주민 개인의 경험에 의한 것으로 현재 북한 상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역과 탈북 연도를 참조해주세요. <나의 살던 고향은>은 북한이탈주민에게 듣는 내고향 이야기입니다.



# NUAC NEWS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의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 민주평통 북한 핵실험 규탄 결의문 발표, 각 지역협의회 릴레이 1인 시위 펼쳐



민주평통은 1월 13일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며 북한의 모든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을 전면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민주평통은 이번 결의문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심각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가 단호한 의지를 갖고 북핵 문제를 조속히,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민주평통은 이번 북핵 위기국면을 평화통일에 유리한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창출하고 실효성 있는 통일준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2~13일에는 유호열 수석부회장의 광화문광장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228개 시·군·구 협의회가 '북핵실험 규탄 릴레이 1인 시위'를 이어갔다.



---

## 유호열 제16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취임 “평화통일 기반구축의 구체적인 성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유호열 제16대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1월 6일 취임했다. 신임 유호열 수석부의장은 취임사를 통해 “2만 자문위원들과 함께 통일의 대장정에서 정부와 국민의 가교 역할을 하고, 평화통일 기반구축에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갈림길에 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적실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2만 자문위원들이 풀뿌리 통일운동에서 모든 역량을 발휘하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사무처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역사적 소명 의식을 공유해 남북관계의 정상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13일에는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은 후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

##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취임식 “통일 분야 전문성 살려 민주평통 발전 모색해 나갈 것”



민주평통은 1월 21일 배정호 민주평통 사무처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배정호 사무처장은 취임사에서 “한국사회의 선진화, 평화통일, 국제사회에서 신뢰받는 선진 강대국 코리아의 건설 등을 주제로 연구활동을 해왔다”면서 “그 동안의 연구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사무처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통일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며, 그 변화의 중심에 사무처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은 금년에 한국사회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한 여러 가지 공작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며 “군건한 안보를 바탕으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북핵 위기를 통일의 기회로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배정호 사무처장은 1월 25일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참배했다.

---



## 무오독립선언 97주년 기념식 및 한민족아리랑음악회 열려



중국 선양협의회(회장 안창락)는 2016년 1월 30일 '무오독립선언 97주년 기념식 및 한민족아리랑음악회'를 선양시 만상성 행사장에서 개최했다. 주선양대한민국총영사관 후원, 한중교류문화원의 협조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동북3성 지역의 재외동포 및 조선족교포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함께 독립군가를 합창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이후 '아리랑'을 주제로 여러 가지 아리랑을 선보이는 '한민족아리랑음악회'가 열렸으며, 통일의 염원을 담은 '홀로아리랑'을 합창하는 것으로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무오독립선언은 1919년 2월 1일 중국 동북 길림성에서 조소앙, 신채호 선생 등 항일독립운동 지도자 39명이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선포함으로써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이 연이어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선언이다.

## 2016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 개최



민주평통은 통일정책을 공유하고 여성위원의 활동방향을 결정하는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정책회의'를 1월 25~26일 부산 코모도 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정책회의에는 김태현 여성부장과 17개 시·도 여성위원장들 비롯해 전국 여성분과위원장 245명이 참석해 2016년도 여성 사업 추진 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와함께 이번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향후 평화통일을 매진하는 의지를 담은 결의문도 채택했다. 전국 여성분과위원장은 결의문에서 "정부와 유엔이 북한 핵실험에 상응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가 취해지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하면서, 북한 위기 상황에서 여성위원들이 앞장서 국민의지를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통일시대시민교실, 강연회 등





▲ 서울 구로구협의회

▲ 경북 경산시협의회

▲ 울산 중구협의회

서울 구로구협의회(회장 이계명)는 2015년 12월 14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통일시대 시민교실'을 개최했다. 16일에는 경북 경산시협의회(회장 허개열)가 이장 및 사회단체장 등과 함께 '최근 북한근황 사진전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안보교실'을 열었으며, 같은 날 울산 중구협의회(회장 이진용)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왕무연)는 '찾아가는 여성통일 아카데미'를 개최했다.

▼ 서울 강남구협의회



▲ 전북 완주군협의회

▲ 서울 중랑구협의회

▼ 충남 금산군협의회

서울 강남구협의회(회장 김정현) 4지회(지회장 김도연)는 17일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안보교육을 실시했으며 전북 완주군협의회(회장 정완철)는 이날 여성단체 대표 및 회원, 여성자문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여성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열었다. 서울 중랑구협의회(회장 김상희)는 18일 북한이탈주민과 각 직능단체 회원, 통일회원 등을 대상으로 '통일시대시민교실'을 개최했으며, 충남 금산군협의회(회장 태진수)도 지역민과 함께 '통일시대시민교실'을 열었다.



▲ 경기 이천시협의회

▲ 서울 송파구협의회

경기 이천시협의회(회장 오문식)는 23일 이천시청에서 '통일준비,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015년 평화통일포럼'을 열었으며 서울 송파구협의회(회장 윤종윤)는 송파구청에서 지역민 등과 함께 '명사초청강연 및 송년음악회'를 개최했다.

▼ 전남 여수시협의회

▼ 충남 서산시협의회



▲ 강원 삼척시협의회

강원 삼척시협의회(회장 김무호)는 28일 각 기관단체 회원, 삼척시민들과 함께 '통일시대시민교실'을 열었고, 전남 여수시협의회(회장 박정일)도 이날 '통일정책 세미나 및 송년의 밤'을 개최했으며, 충남 서산시협의회(회장 송낙인)는 통일준비를 위한 '통일공감 강연회 및 활동평가회의'를 실시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 전남 함평군협의회

▼ 경남 진주시협의회



전남 함평군협의회(회장 운영수)는 2015년 12월 16일 함평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북한이탈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를 개최했고, 경남 진주시협의회(회장 원호영)는 진주동명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과 함께 '2015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같은 날 경기 동두천시협의회(회장 안민규)도 시민회관에서 관내 고등학생 및 일반시민들과 함께 '통일을 향해 목소리를 높여라(통일골든벨)' 행사를 열었다.

경기 동두천시협의회 ▶



▼ 경남 양산시협의회



▲ 경기 광주시협의회

▼ 경북 김천시협의회



경남 양산시협의회(회장 전재근)는 17일 경남외국어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강연회'를 개최했으며 18일에는 경기 광주시협의회(회장 박종선)가 광주중앙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2015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이날 경북 김천시협의회(회장 최용남)는 김천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칠곡호국평화기념관과 다부동 전적기념관 일대에서 청소년 '통일역사 현장 체험'을 실시했다.



▲ 울산 동구협의회



▲ 강원 속초시협의회

▼ 경기 포천시협의회



울산 동구협의회(회장 지중찬)는 21일 화암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북한 바로알기, 청소년 통일공감 토크 콘서트'를 열었고, 강원 속초시협의회(회장 장세호)는 속초여자고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통일안보 강연회'를 개최했으며, 경기 포천시협의회(회장 오병익)는 송우고등학교 학생 및 교사 등을 대상으로 '탈북청소년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2015년 마지막 이야기' 행사를 열었다. 또한 경북지역회의(부의장 한삼화)는 21~22일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과 부산





일대에서 '경북지역 청년위원 및 대학 통일동아리 전쟁·문화 유적지 탐방'을 실시했다.

▲ 경북지역회의



▲ 경북 영양군협의회



▼ 전남 무안군협의회

▼ 제주지역회



23일에는 경북 영양군협의회(회장 조동만)가 영양여자중·고등학교에서 '2015년 찾아가는 청소년 통일 교육'을, 전남 무안군협의회(회장 김정훈)가 무안백제고등학교에서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를 각각 개최했으며, 제주지역회의(부의장 김순택) 청년위원회(위원장 김치용)는 제주한라대학교에서 '제주지역 대학생 모의남북회담'을 열었다. 경기 하남시협의회(회장 류인호)는 24일 남한중학교에서 '찾아가는 학교 방문 청소년 통일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하남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충남 논산시협의회

인천 서구협의회 ▶



◀ 전남 화순군협의회

▼ 충남 예산군협의회



전남 화순군협의회(회장 홍남희)는 2015년 12월 11일 탈북민, 다문화 가정과 함께 통일강좌를 실시하고 역사·안보 현장을 탐방했으며, 충남 예산군협의회(회장 정달순)는 26일 탈북청소년 멘토링 사업으로 수석사원원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했다. 충남 논산시협의회(회장 송덕빈)는 17일 '희망! 2015 행복한 세상 만들기'의 일환으로 북한 이탈주민과 함께하는 빵 만들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인천 서구협의회(회장 유경학)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북한이탈주민, 서부경찰서 관계자 등과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 쌀 전달식'을 열었다.





▲ 전남 곡성군협의회



▲ 전남 광양시협의회



▲ 광주 북구협의회

전남 곡성군협의회(회장 김판준)는 18일 여성단체 회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들과 함께 '여성통일강좌 및 북한음식함께만들기' 행사를 열었으며, 전남 광양시협의회(회장 정용관)는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민주평통 광양시협의회-광양서울병원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광주 북구협의회(회장 김선남)는 21일 북구청에서 '북한이탈주민(학생) 장학금 전달 및 통일축제 한마당'을 열었다.



▲ 충북 영동군협의회



▲ 강원 춘천시협의회



▼ 경북 안동시협의회

충북 영동군협의회(회장 정원용)는 충청북도영동교육지원청과 함께 22일 용화초등학교를 방문해 관내 북한이탈가정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강원 춘천시협의회(회장 이돈균)는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김숙영) 주관으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이야기 및 멘토-멘티결연식'을 열었다. 경북 안동시협의회(회장 권순협)는 23일 탈북민, 경찰서 및 안동농협 임원진이 참석한 가운데 '2015 탈북민과 함께하는 송년의밤' 행사를 개최했다.



▲ 전북 전주시협의회



▲ 전북 남원시협의회



▲ 경기 안양시협의회

전북 전주시협의회(회장 나춘균)는 28일 한 해를 마무리하는 '어깨동무하기 멘토-멘티 송년의 밤'을 개최했으며, 같은 날 전북 남원시협의회(회장 김병석)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평화통일 한마음 퀴즈대회'를 열었다. 경기 안양시협의회(회장 이상호)는 29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활동평가보고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 경기 과천시협의회





▲ 부산 사상구협의회



30일 부산 사상구협의회(회장 이명숙)는 사상구청에서 '제5회 북한이탈주민 합동차레지내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경기 과천시협의회(회장 이순형) 사회복지분과위원회(위원장 신기중)는 안산시 소재 탈북아동 생활공동체를 방문해 탈북아동과 청소년들을 격려했다.



▲ 부산 사하구협의회



▲ 부산 동구협의회

▼ 서울 관악구협의회



부산 사하구협의회(회장 배백식)는 2016년 1월 14일 어깨동무하기 멘티와 학부모, 경찰서 및 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기원 신년회'를 개최했다. 15일에는 부산 동구협의회(회장 강영자)가 관내 거주 북한이탈주민을 초청해 정착지원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전달하고 부산동부경찰서 관계관들과 '신년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서울 관악구협의회(회장 이정범)도 '북한이탈학생 학자금 지원'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18일에는 대구 달서구협의회(회장 김옥열)가 '북한이탈주민 3쌍 합동결혼식'을 열었다.



▲ 대구 달서구협의회

## 통일문화 확산



▲ 전북지역회의



▲ 경남 함양군협의회

전북지역회의(부위원장 송헌만)는 2015년 12월 23일 '전북지역 통일 거버넌스 한마당'을 개최했으며, 경남 함양군협의회(회장 이영재)는 30~31일 강원도 철원 통일전망대와 제2당굴, 평화 유적지 등으로 안보견학을 다녀왔다.

강원 영월군협의회 ▶







▲ 경북 칠곡군협의회



▲ 전북 김제시협의회



경북 칠곡군협의회(회장 이수현)는 2016년 1월 1일 칠곡군 자고산에서 거행된 새해 해맞이 행사에 동참해 평화통일성취를 기원했으며,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김제성산공원에서 통일을 기원하는 새해맞이 행사를, 강원 영월군협회(회장 김유영)는 평화통일 기원 장릉 참배 행사를 열었다.



◀ 부산 수영구협의회

▼ 전남 영암군협의회



부산 수영구협의회(회장 김중수)도 이날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희망찬 새 출발과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풍선, 소원쪽지 등을 사람들에게 나눠줬으며, 전남 영암군협의회(회장 김성대)는 여성분과 자문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새해맞이 소원 빌기' 행사를 실시했다.

## 지역 봉사활동



▲ 경기 고양시협의회

▼ 강원 동해시협의회



인천 계양구협의회 ▶

▼ 경북 청도군협의회



경기 고양시협의회(회장 우신구)는 2015년 12월 21일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국군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복카페 기증식'을 가졌으며, 강원 동해시협의회(회장 김홍수)는 29일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저소득 가정에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전달했다. 같은 날, 경북 청도군협의회(회장 박만수)는 청도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랑 나누기' 행사를 개최했으며, 인천 계양구협의회(회장 최재현)은 구청에서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할 성금을 기탁했다.



▼ 강원 화천군협의회







▲ 경남 거창군협의회



경남 거창군협의회(회장 신현기)는 2016년 1월 5일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정영순) 주관으로 거창경찰서 유치장 재소자와 의경에게 신년 떡국을 무료로 제공했으며, 강원 화천군협의회(회장 이태호)는 19일 '2016 화천산천어축제'가 열리고 있는 축제장을 찾아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했다.

## 해외 지역 통일활동



중국 선양협의회(회장 안창락)는 2015년 12월 11일 북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중국의 동북3성에 거주하는 한인 유학생 및 다렌한인회 임원진 등을 대상으로 '동북3성 청년 통일비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지난 가을 중국지역회의의 주관으로 열린 '광복70주년 기념 세계청소년과 함께하는 15000리 통일염원 임정대장경' 참가자 김미선 학생(다렌이공대)의 소감발표가 있었으며, 미국 예일대에서 '북한인권위원회'를 조직하는 동북한인권 및 통일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이규민 학생이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어 광승지 자문위원(현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의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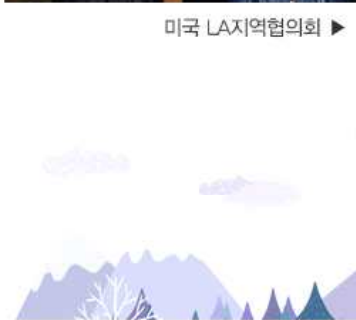
미국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권석대)는 지역협력 및 탈북자후원분과위원회와 재미탈북자지원회 주관으로 12월 18일 탈북민가정에게 약 2만 달러의 위로금 및 장학금을 전달했다.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는 미국에 정착해 학업의 길을 걷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매년 장학금과 위로금을 전달해오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김가등 OC한인회장, 김현명 LA 총영사, 민승기 OC교회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60여 명의 탈북민 가족들이 참석했으며 위로금 및 장학금 전달식에 이어 홍명기 민주평통 운영위원의 통일 강연이 있었다.



중국 상하이협의회(회장 이상철)는 12월 11일 통일 강연회와 2015년 송년회를 개최했다. 주 상하이 총영사관과 한인단체 관계자 및 상하이, 소주, 무석 한국 학교 학생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차두현 경기도 외교정책 특별자문관이 '북핵문제 해결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강연을 실시했다.



◀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LA지역협의회 ▶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는 2016년 1월 16일 새크라멘토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어 평화를 갈망하는 동포들의 의지를 지역사회에 알렸다. 코인 송지은 샌프란시스코회장과 조난희 씨 구명운동에 앞장섰던 이미선 위원, 각 지역 단체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규탄대회에서 참가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의 길은 평화통일에 있다'며 '대북제재 결의를 보다 강화하고, 북핵문제에 세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미국 LA협의회(회장 임태랑)는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수소탄 핵실험은 8천만 동포의 평화통일 염원을 저버리는 행위'라며 강력 규탄했다. LA지역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폭탄을 폐기하고 △모든 핵실험을 중지하며 △북한식 비방 끝 전술인 평화협정 협상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요망에 부응하는 한편 △아무런 조건 없이 6자회담에 즉각 나서고 △남북 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미국 하와이협의회(회장 김동균)는 9일 와이키키 리조트호텔에서 한인단체장, 공관장 및 동포 1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민주평화통일 기원 조찬기도회 및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하와이 한인사회의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박봉룡 하와이 한인회장의 선창으로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하와이 한인사회의 규탄 성명서를 제창하며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 미국 하와이협의회



◀ 캐나다 밴쿠버협의회





캐나다 밴쿠버협의회(회장 서병길)는 12일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고 캐나다 대북 정책에 대해 토론하는 통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토니 클레멘트 캐나다 전 외무부 장관과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을 비롯해 밴쿠버협의회 운영위원, 한인 동포, 유관 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이어 13일에는 밴쿠버협의회 에드먼튼 지역 자문위원과 한인들이 북한 핵실험 규탄 피켓시위를 열었다.



베트남협의회(회장 유명식) 하노이지회(지회장 김정인)는 하노이한인회, 베트남 한국상공연합회 등과 함께 11일 북한 제 4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규탄 결기대회를 열었다. 각 유관 기관 대표들을 비롯한 약 80여 명의 교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규탄대회에서 '북한은 핵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핵개발에 투입하는 힘과 노력을 북한 동포들의 인권과 삶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며, 우리 정부는 유엔 및 관련 당사국들과의 확고한 공조체제로 단호한 대응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베트남 자문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데 힘을 보태고 정부의 대북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동참할 것 등을 결의했다.



# 이 계절이 건네는 가장 다정한 인사 경남 합천



세상 밖 소란한 소음마저 다독여 준 눈송이가 천 년 사찰의 짙은 남청 빛 지붕을 한 겹, 두 겹 덮어 토닥토닥 잠재우는 동안 어떤 소리들은 더욱 선명하게 객을 맞이한다. 파도가 자갈 위를 스치듯 질게 우거진 메마른 나무를 덮고 지나는 바람소리가, 크게 울렁이다 새하얗게 부서지는 파도소리와 닮았다는 것도 처음 깨닫는다. 바람만이 아니다. 얼어붙은 계곡 아래로 흘러가는 물소리, 앙상한 나뭇가지 위 수다스런 새소리, 짧은 겨울 해에 떠밀린 눈송이 소리, 찬 공기를 가쁘게 들이 마시는 숨소리. 무심코 지나칠 만큼 작은 소리 하나도 이곳에서는 선명하게 울린다. 그리고 그 제각각의 소리가 모여,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인사가 된다. 오늘도 안녕하십니까? 아주 추운 겨울날, 마음의 별을 쫓이기 위해 경남 합천을 찾았다.

## 그 겨울, 천년 사찰에서 비워 낸 욕심 ‘해인사’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예보에 지레 겁을 먹고 웅그린 어깨가 무안할 정도로, 사찰로 향하는 소리길은 평온했다. 뾰드득 간간이 밟히는 눈의 기척만 아니었다면, 산 너머 요란스런 추위가 거짓말이라 했을 것이다. 걸보기엔 단단히 얼어붙었지만, 심 없이 졸졸 흐르는 홍류동계곡의 물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산책이라도 하듯 한가로이 걷다 보면 드디어 목적지에 다다른다.

그리고 다시 주변의 풍광과 어우러진 소박한 모양새 탓에 일주문 중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힌다는 사찰의 일주문을 시작으로 봉황문, 해탈문의 문지방을 차례로 지나면 비로소 유구한 세월을 품은 천년 사찰, 해인사와 마주하게 된다.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3년에 창건해, 1,200여 년간 가야산 자락이 지켜 온 국내 3대 사찰 중 하나로, 아름다운 자연 풍광만큼이나 귀한 문화재를 많이 품고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중에서도 단연 첫 손에 꼽히는 것은 세계 최초이자 최고(最古)의 목판본 고려팔만대장경판(이하 '팔만대장경', 국보 제32호)과 그 팔만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전각, 팔만대장경판(국보 제52호)이다.



'팔만대장경'은 몽골과의 전쟁으로 나라 안팎이 혼란했던 고려시대, 민심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방편으로 부처의 일생과 가르침을 목판에 새긴 것으로 현존하는 대장경 중 가장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동시에 가장 오래된 유산으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다. 팔만대장경뿐 아니라 530여 년간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던 장경판전 역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해인사에서 가장 깊숙이, 긴 담장 너머 보존 중인 팔만대장경과 장경판전은 현재, 일반관람은 어려운 상황. 다만 대장경이 보관되어 있는 수다라장의 나무 창살 너머 조용히 잠들어 있는 대장경의 분위기를 엿볼 수는 있으며 바깥쪽에서는 복제본인 팔만대장경과 유네스코 인증서도 관람가능하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 걸어 내려오면 신라 말기의 학자 최치원이 거꾸로 꽃아 천 년 고목으로 자랐다는 학사대전나무와 일주문 근처에선 성철 스님의 사리를 모신 사리탑이 있는 비림까지 두루 볼 수 있으니, 실망감에 젖어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말 것.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이긴 않을까. 이미 놓친 것들에 연연하느라 정작 주변의 다른 귀한 것마저 흘려보내는 실수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범종각 앞 눈 쌓인 해인도를 따라 걸으며 잠시 머릿속을 비워낸다.

## 🌳 촌스러운 듯 친숙한 거리에서 찾은 그리움, '합천영상테마파크'

해인사를 떠나 이번엔 합천댐 방향으로 향한다. 합천댐에서 시작해 황강으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따라 달리다 보면 합천의 명소인 합천영상테마파크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합천의 빼어난 자연 속 자리한 영상테마파크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드라마나 영화의 촬영장과 정겨운 옛 시절의 풍경이 가득하다. 간이역처럼 꾸며진 매표소에서 입장권을 구매해, 안으로 들어서면 가장 먼저 노면 전차가 시선을 사로잡고, 촌스러운 듯 익숙한 간판을 따라 걷다 보면 금세 광복 전후의 시가지 풍경이 펼쳐진다. 또 뒷골목으로 향하면 허름한 달동네와 동네 목욕탕, 대표집과 국수집이 이어진 7,80년대 서울 풍경도 만날 수 있다.







▲ 구서울역



◀ 옛날대로 / 옛날전차

한창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의 여파인지, 살아온 시대와 상관없이 오래된 포스터와 허름한 간판이 낡아 빈 세트장임에도 한참을 기웃거리게 된다. 어떤 이름의 인연이든 동행한 이와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다는 점도 이곳의 매력일 것이다.

## 아, 아름다운 이 땅 대한민국, '합천임란창의 기념관', '정양늪생태길'

거닐며 볼 곳 많은 합천을 한눈에 내려다보고 싶다면 합천댐 아래, 영상테마파크에서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합천임란창의 기념관을 추천한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당시 왜적과 맞서 싸운 선민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사당으로 내 땅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왜군을 향해 돌진했던 평범한 사람들의 평범할 수 없었던 이야기에 절로 숙연해진다. 그리고 사당 앞에서 마주한 탁 트인 자연경관에 새삼 감탄하게 된다. 이 아름다운 땅이 바로 우리나라다.

합천의 자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 한 곳 더 있다. 바로 정양늪이다. 황강 지류 야천 천의 배후습지로 생태학적 보존가치도 높지만, 새로 단장된 목재 데크길과 황톳길, 등성등성 놓인 징검다리 덕분에 걷는 즐거움도 쏙쏙하다. 키 큰 갈대숲 너머 쉬어가는 철새들의 날갯짓을 보고 있다면, 곧 지나갈 이 계절도 조금은 아쉽게 느껴진다.



## 마음이 건강해지는 이 계절의 맛, '더덕구이 정식'



깊은 산과 깨끗한 물을 자랑하는 합천은 산나물이 맛좋기로 이름난 지역. 그중에서도 해인사 인근에는 고사리, 표고, 시금치, 토란, 도라지 등 가야산 일대에서 자라는 산채를 재료로 한 산채정식이 유명하다. 특히 촉촉한 핑계로 게으름을 피우는 사이 멀리 떠난 입맛을 돋우기엔 제철 더덕만 한 것이 없을 것이다. 고추장 양념을 삼삼하게 해 구워낸 더덕구이에 20여 가지가 훌쩍 넘는 반찬을 앞에 두고 있다면 마음부터 건강해지는 기분이 든다.

<기사. 권혜리 / 사진. 김규성, 합천군>



# 자기는 눈이 봉우리야?

글. 권혜리 / 그림.이택중











어휴~.  
그 봉우리는 혼자가라 전해라~.

\* 북한말 : 눈이 봉우리아? = 남한말 : 잘난 척하니?





## 달콤한 전통 과자, 황해남도 대추밤초

한과(韓果)는 한국 전통 과자를 이르는 말이며, 견과류로 만든 '강정(姜釘)', 밤 가루 등으로 만든 '다식(茶食)', 대추초로 대표되는 '숙실과(熟實果)', 약과(藥果)가 유명한 '유밀과(油蜜果)' 등으로 나뉜다. 이 중 숙실과는 원래 황해남도 안악 지방에서 유래된 북한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숙실과의 하나인 대추밤초는 재료를 익혀 그 모양 그대로 꿀에 졸인 음식으로, 과거 제사나 명절에는 귀한 음식 대접을 받았다.

### 요리재료

대추 30개, 밤 5개, 잣 30알, 꿀 5큰 술(75g), 설탕 3큰 술(조청도 가능), 물 3큰 술



### 요리방법



① 설탕과 물을 냄비에 넣고 중불에서 젓지 않고 끓인 후 식힌다.



② 밤은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삶는다.





3 삶은 밤의 속을 파내어 으갠다.



4 으갠 밤에 꿀을 넣고 반죽해 소를 만든다.



5 대추는 돌려 깎기 해 씨를 제거한다.



6 씨를 제거한 대추를 뜨거운 김이 오르는 찜솥에 10분간 찜는다.



7 찜 대추를 ①의 식혀둔 설탕물에 조리한다.



8 조리된 대추 안에 밤 소를 넣고 다시 대추 모양을 만들어 갖을 한 알씩 끼우면 완성.

〈글. 사진 / 요리연구가 박민지〉

## 과일을 즐겨 만든 '초(炒)'

'초'란 속살과의 대표적인 한과 요리로, 과실을 손질한 뒤 꿀물에 서서히 조리 만든다. 과실 형태를 그대로 갖고 있고 윤기가 돌기 때문에 먹음직스러워 보인다. '조선요리제법', '조선무쌍신식요리제법' 등의 고 조리서에도 만드는 법이 기록돼 있을 정도로 오랜 전통을 자랑한다. 밤과 대추는 자손 번창의 의미를 지니며 주로 초로 만든 뒤 한 접시에 어울리게 담아 다과상, 교자상, 이바지 및 폐백상에 올렸다. 껍질을 깠던 밤을 조리 만든 '밤초', 씨를 빼고 만든 '대추초', 대추와 밤을 함께 사용한 대추밤초가 있다.





# 2025 타임캡슐 당선작

## 평양발령 후, 행복한 날들...

10년 후의 나에게, 처음 평양으로 발령이 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맘이 컸지만 이렇게 잘 해나가고 있는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오히려 승진도 잘되고 친절한 북한주민들 덕분에 행복해 보여  
통일이 나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 같아 정말 기뻐!  
어색하진 않을까 걱정했던 내가 무색할 정도로 북한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그렇게 적응을 잘할 줄은 지금의 나도 몰랐어.  
더욱더 강성해진 통일한국에서 앞으로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지내길 바랄게. 아자아자 파이팅~!! <아몬드>



평양에서 외국인 통역 가이드 중





안녕! 지금쯤 평양에서 외국인 통역 가이드를 하고 있겠지?  
 지금 나는 비공식적 외교관인 통역사를 준비하고 있어~ 꼭 한 번 평양을  
 무대로 통역가이드를 할 수 있는 꿈을 꾸곤 해. 평양을 누비고 있을  
 지금의 나를 생각하니 몹시 흥분된다.^^ <덕삼이>

### 통일한국에서 살고 있을 40대의 나에게

다행이야, 네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통일한국에서  
 살 수 있게 되어서 말이야. ^^ 40대가 되면 세계 여행을 하마  
 했던 꿈을 잊지는 않았겠지? 유라시아 대륙을 통해서  
 유럽까지 기차로 이동해서 전 세계를 더 안전하고, 더 저렴하고,  
 더 편리하게 여행할 수 있을 거야! 세계 여러 사람들에게  
 이제 South Korea라고 소개할 필요 없이, 통일된 우리나라,  
 United Korea라고 소개할 수 있겠지? 통일이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 아마 통일한국을 모르는 세계인은 없을 거야. ^^  
 벌써 10년 뒤의 내가 기대된다! <타임캡슐>



### 국제도시 나진특구에서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일하며...

2025년 저는 전공인 러시아어를 잘 살려서 나진특구에서 무역상사 주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웃 나라인 러시아 중국뿐 아니라 세계 유수의 기업들이 투자를 위해 이곳 나진 선봉에 많이 오고  
 오피스텔과 고층빌딩의 모습 등 제법 인천 송도 국제도시랑 비슷한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3년 전 이곳으로 발령받았을 때 현지 직원분들과 외국 바이어들 다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마음을 다잡은 뒤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고 침체된 구 북한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분주하게 뛰면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노력했던 것이 오늘날 나진 특구가  
 국제도시의 면모로 환골탈태하는데 작은 밑알이 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오늘 저녁은 퇴근 후 현지인 직원분들의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함경도 대표 음식 아바이 순대 그리고 전통주 한잔 생각에 벌써 마음이  
 실레네요. 처음엔 이질적인 문화에 북측 동료직원들과 어색해 하기도  
 했지만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고 술 한잔 하니 한 핏줄, 한 겨레라는 점을  
 잘 느끼게 됩니다. 구 북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민족 동질감 회복에도  
 제가 기여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보네요. <유광열>



### 남북한 통합 위해 가교역할을 하고 있어요!

10년 후 통일한국에서 나는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과 남한 사람들이 서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통일은 통일이 일어난 이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찰이 없고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중간역할을 하며  
 열심히 살고 있을 것입니다. <쌍쓰이>







# 민주평통 앱 설치 인증샷 이벤트



[e-행복한통일] 웹진 앱을 설치하고  
설치 화면을 캡처해서  
카카오톡으로 응모해주세요~!

**응모기간** 2016.02.05 ~ 2016.02.26

**응모방법** 웹진 앱 설치 인증화면을 카카오톡 아이디  
webzine(친구찾기로 검색)으로 보내주세요!



**당첨자수** 30명

**시상내역** 빙그레 바나나우유



**<주의사항>**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통일 사진·UCC Contest



통일과 관련된 사진 또는 UCC를  
촬영해서 올려주세요~  
단순한 통일안보견학 사진은 노노!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여주세요 ^^

매월 Best컷을 1컷 선정합니다.  
(당첨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응모기간	2016.02.05 ~ 2016.02.26
응모방법	파일첨부로 응모
당첨자수	1명
시상내역	문화상품권 3만원

**파일  
첨부**



〈주의사항〉

- 심사는 내부 기준에 의해 진행됩니다.
- 경품수령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회원정보로 인한 상품 미수령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문의 : 02-2269-5029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웹진 이벤트 담당자





## e-행복한통일 이벤트 당첨자 발표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 '브라보 마이 라이프, 브라보 통일' 이벤트

번호	이메일 주소	닉네임
1	**ddaye@gmail.com	찬희
2	**yuo700@naver.com	김지상
3	**thsyung04@naver.com	박혜미
4	**ris83@naver.com	박현혜
5	**mthguss@naver.com	박소현
6	**rhappy@naver.com	백경로
7	**ove9419@naver.com	민돌이
8	**dtndls@naver.com	왕수
9	**2yun@naver.com	빈이
10	**allownim@naver.com	으라차차

### ★ '웹진 만족도 조사(email)' 이벤트

번호	휴대폰 번호	번호	휴대폰 번호
1	010-7477-51**	16	010-8711-75**
2	010-9438-25**	17	010-3113-28**
3	010-8322-54**	18	010-9975-75**
4	010-6731-81**	19	010-5396-18**
5	010-2437-85**	20	010-5395-32**
6	010-6700-96**	21	010-9323-06**
7	010-8281-02**	22	010-3333-59**
8	010-5104-14**	23	010-5007-15**
9	010-3008-95**	24	010-9283-04**
10	010-4850-44**	25	010-6292-02**



11	010-9012-21**	26	010-3735-88**
12	010-9318-49**	27	010-4154-55**
13	010-5215-06**	28	010-3091-00**
14	010-8208-57**	29	010-9327-99**
15	010-7759-94**	30	010-6483-66**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벤트는 계속되니 앞으로도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